

# 漢文學 유산의 대중적 개방

崔致遠에서 黃玿에 이르는 「韓國의 漢詩」 시리즈

한문으로 씌어진 선인들의 문학작품을 국문학의 전통 속에 포용하는 문제에 대해 이제 새삼스레 이의를 다는 일은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문문학이 국문학의 당당한 유산이라는 인식이 보편화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막상 그런 한문문학의 주목에 값할 만한 가치가 대중적으로 증명받는 기회 역시 거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한문문학의 가치란 이제까지 연구자들만의 합의 사항이었을 뿐, 그것이 일반독자에게 보급되고 확인되는 절차는 밟아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평민사에 의해 목원대 허경진 교수의 번역으로 「韓國의 漢詩」 시리즈가 연속출판됨으로써 최소한 한시에 있어서만큼은 그 가치가 대중적으로 개방돼, 일반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나라 한시의 대중화 작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만, 종래의 소개가 대개 산발적이었음에 반해, 이 「韓國의 漢詩」 시리즈는 신라의 崔致遠에서 구한말의 黃玿에 이르기까지 대표적 한시작가들을 선정해 체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거의 최초의 시도라 할 만하다.

모두 33인의 작가를 20권으로 묶고, 따로 이 平民시인들의 작품도 한권으로 모아 총 21



권으로 완간될 이 시리즈의 기간본은 10권. 1986년에 李奎報, 金時習, 許筠, 梅窓, 丁若鏞의 詩選 5권이 일차분으로 처음 나오고, 최근 李齊賢, 許蘭雪軒, 權韓, 玉峯·竹西 및 平民들의 시선 5권이 다시 상재됐다. 앞으로 나올 책은 崔致遠, 李荇·朴闇·申光漢, 退溪·栗谷, 鄭士龍·盧守愼·黃廷咳, 崔慶昌·白光勳·李達, 李安訥·李植, 申光洙, 李德懋·柳得恭·朴齊家·李書九, 申緯, 姜瑋·金澤榮·黃玿 시선 등인데, 이제까지처럼 2년 주기로 5권씩 간행한다는 것이 출판사측의 계획이다.

위에서 보듯 이 「韓國의 漢詩」 시리즈에 드러난 가장 큰 특징은 작가선정의 기준을 우리 한시사상에서의 비중보다는, 일반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여부에 더 치중했다는 데 있다. 가령, 「象月谿澤」의 前四家로 불리는 신희, 이정구, 장유, 이식 중 이식만을 이 시

리즈에 포함시키는데 반해, 조선중기의 三唐시인으로 일컬어지는 최경창, 백광훈, 이달은 모두 포함된 것이 좋은 보기라 할 만하다. 아울러, 묶여진 부피로 보더라도 後四家로 지칭되는 이덕무·유득공·박제가·이서구를 한권으로 모은 데 비해, 조선 선조~인조대의 二才로 불리는 권필은 한권, 이안눌은 이식과의 합본으로 처리돼 있음이 보인다.

이에 대해, 「도서관의 서고에나 묵혀 있던 우리 옛시를 요즘 독자에게 읽혀보자」는 동기 아래 이 시리즈 번역에 착수했다는 허경진 교수는 「시에 대한 조선초 이래의 성리학적 품평을 가급적 무시한 결과」라고 설명한다.

“이 시리즈에는 조선 중기 때의 시인들이 많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은 대개 성리학에서 말하는 性과 情 가운데 情을 주로 노래한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의 일

반독자가 흥미롭게 읽을 수 있죠. 말하자면, 前四家들처럼 우리 한문학사상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가들보다는, 이달과 같이 인간의 정에 예민함과 간곡함을 잘 표현해낸 작품을 남긴 시인들을 중심으로 이 시리즈는 엮어졌습니다.”

한편, 「韓國의 漢詩」 시리즈의 또다른 특징은 원문을 가급적 매끄러운 우리말 위주로 번역했다는 점에도 있다. 이를 위해 시 자체의 가치는 탁월하더라도 매끄러운 번역이 불가능한 귀절이 많은 작품은 아쉽지만 과감히 포기하기도 했다는 것이 허교수의 말이다. 그러다보니, 이 시리즈에는 짧게 읽는 맛의 絶句나 律詩가 주로 실린 특징도 아울러 갖는다.

그밖에도 이 시리즈는 원문과 譯詩를 병기함에 있어 한글번역은 현대식 사진식자로, 한문원시는 재래식 활판전사를 병용하는 등으로 인쇄효과와 제고를 꾀하고 있다. 또, 책의 장정도 한시 특유의 예스러운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고문집 스타일로 꾸몄다.

어쨌든 이 「韓國의 漢詩」 시리즈는 모처럼 만에 보는 우리 한문학 유산의 대중적 개방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듯하다.

평민사 / A5신 / 각권 120면 내외 / 각권 2500원

—강철주 기자

## 카메라에 잡힌 性徹스님

사진작가 朱明德씨가 寫眞集 엮어내



대한불교조계종 性徹종정스님의 지난날과 오늘을 사진으로 정리한 「泡影集」이 최근 가야산 해인사 백련선서간행회에서 출간돼 관심을 끌고 있다.

사진작가 朱明德씨가 3년여에 걸쳐 찍은 사진들을 중심으로, 주명덕씨 스스로의 편집 및 장정으로 꾸며진 이 「泡影集」은 특히 白蓮庵으로의 은거 이후 일반대중에게 거의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성철스님의 근황이 상세히 공개돼 더욱 주목을 끈다. 아울러, 이 책은 한 사진작가의 앵글에 포착된 투철한 수도인의 진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 외에도, 거기 실린 한커트 한커트의 사진이 모두 훌륭한 예술작품의 풍격을 지닌다는 점에

서도 큰 평가를 받을 만하다.

「泡影集」은 모두 세부분으로 나뉘져 있는데, 제1편 「泡影露」에는 주로 성철스님의 근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모았다. 선방의 老師가 갖는 넉넉한 여유를 엿볼 수 있는 사진들을 비롯해, 면벽좌선의 묵도하는 모습 등을 담은 63커트의 사진작품이 실려 있다.

제2편 「雲水行」에는 성철스님의 生家の 모습과 함께, 출가 이후 高僧大德의 善知識을 찾아 행각하던 수행처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함께 묶었다. 성철스님이 방장으로 추대돼 현재까지 20여년간을 머물고 있는 해인사의 정경을 주로 실고, 대원사, 송광사, 범주사, 수덕사, 통도사, 범어사, 김용사 등의 모습도 같이 묶었다. 성철스님의 수행처였다는 사실을 떠나서도, 우리나라 사찰들의 존재양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있는 부분이다.

제3편 「片雪」은 일종의 자료편. 성철스님이 처음 受戒得度했던 1936년, 곧 법랍 1세때

의 모습을 비롯한 그의 지난날을 엿볼 수 있는 사진들과 함께, 道伴이나 후학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류를 모았다. 그리고, 책의 말미엔 따로이 성철스님의 붓글씨 두점과 연보를 덧붙였다.

책머리에 붙인 法頂스님의 말처럼 얼굴이란 곧 「얼의 꼴」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泡影集」의 사진들을 통해 드러나는 성철스님의 혹은 온후하고 혹은 강건하며, 또 때로는 천진스런 얼굴들은 우리시대 불가의 宗師로서 성철스님이 갖는 도량의 깊이와 상응하는 것일 수 있다. 따라서, 그런 도량의 깊이를 그처럼 다양한 모습으로 포착해 낸 사진작가 주명덕씨의 3년여에 걸친 노력 또한 주목에 값한다 하겠다.

「泡影集」은 그 종교적 색채를 떠나서도, 자체로서 이미 「카메라를 통한 인물탐구」의 훌륭한 전범이 되고 있다.

장경각 / A4 / 300면 / 8000원

—강철주 기자